

보고

제11차 의료의 질에 대한 세계학회를 통해 본 의료의 질 향상 활동 동향

김 창 엽* · 이 영 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 한국의료관리연구원**

1. 서론

‘의료의 질 보장(Quality Assurance, 이하 QA라 함)’은 그 동안 의료 부문의 발전과 전국민 의료보협의 실현에 따라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점차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미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개념 정립과 함께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방법론까지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의 의료환경에 적합한 개념의 정립과 효과적인 방법론의 모색은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우리 나라 의료와 우리 고유의 특성과 함께 국제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QA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QA활동의 맹아기에 있는 우리 나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선진 외국의 QA발전 경향과 새로운 방법론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제11차 의료의 질에 대한 세계학회를 통해서 본 구미 각국의 QA활

동 혹은 연구의 최근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11차 학회는 1994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되었으며, 본 필진의 외에도 3명의 연구자가 참석하였다.

2. 의료의 질에 대한 세계학회

의료의 질에 대한 세계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ISQua)는 1986년 스웨덴에서 창립되어 전 세계 회원국에 걸쳐 약 700명의 회원을 가진 국제학회로, 이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 있는 학회이다. 회원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가입이 자유롭다. 학회는 1986년 파리를 시작으로 마드리드(1988년), 오스트레일리아(1989년), 스톡홀름(1990년), 워싱턴(1991년), 멕시코 시티(1992), 마스트리히트(1993년) 등에서 개최된 바가 있고 1994년에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되었다. 1995년에는 캐나다의 세인트 존스에서, 1996년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는 1991년부터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매 학회 때마다 다수 인력이 참가하고 있다. 현재 10여명이 개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3. 학회 진행 개요와 주요 주제

학회는 5박 6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학회 첫날은 주최국의 국내 QA학회가 오전에 진행되고 오후에는 학회전 집담회(pre-conference meeting)로 각국의 대표자가 참여하여 QA의 동향과 각국의 사례 발표, 토의 등이 진행되었다. 2일째는 학회전 교육 세미나와 학회 총회, 3, 4일째는 연제발표와 간호분야 QA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학회전 집담회는 QA를 위한 국가체계(National Structures for QA),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의 개발(Developing standards and monitoring system), 질 관

리(The use of quality management including team work and client focus)의 3개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진행은 주제별로 3명씩 간단한 발표를 한 후 토론하는 방식이었다.

학회전 교육 세미나는 본 대회 이전에 QA분야의 주요 주제별로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참가자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주제 분야별로 연구 경력이 많은 연구자가 진행을 맡았고, 관련 주제의 연구 결과를 일부 참가국에서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내용은 다양하였으나 세미나의 사전 준비가 대체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교육 자료의 배포가 전혀 없었고, 관련 논문 1-2개를 그냥 참고로 놓아두는 정도였던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 그리고 교육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발표 주제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적인 내용과 접근 방법론에 대한 소개가 없었으며, 몇 주제에서는 참가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이는 정도였다. 주요하게 다루었던 세미나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 학회전 교육세미나의 주제

- 의학 훈련에서의 QA(Quality Assurance of Medical Training)
- 의료기관 신임제도(Accreditation)
- 의학기술평가와 QA(Technology Assessment and QA)
- QA 측정과 향상에서의 연구와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in quality measurement and improvement)
- QA의 기본 개념(ABC in QA)
- 병원감염과 QA(Hospital Infection and Quality Assurance)
-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총체적 질 관리(TQM in Health Care)

본 학회는 약 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종합연제(Plenary Session)와 분야별 연제(Parallel Session)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발표된 연제의 주제들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발표의 형식이나 방법은 국내 학회에서의 수준과 대동소이하였으나 내용 면에서는 국내에서의 논의를 훨씬 앞서 가는 주제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QA를 실천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소개 단계에 있는 개념이나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논문이 상당수 발표되었다고 할 것이다.

연제발표 외에도 특별한 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의할 수 있는 주제별 특별 회합(Meeting Point Room)이 있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병원의 응급실 단위에서의 QA 활동(TQM in Hospitals: the Critical Problems) 소개와 유럽지역의 QA 관련 부처의 공무원(EURO WHO meets 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s)이 참가하여 각 국의 사례 토의와 경험담을 전수하며 새로운 접근 전략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밖에 간호 분야의 QA를 다루는 Nursing Day(별도의 장소에서 1일간 진행되었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포스터 전시(Poster Session)가 학회 기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전체 약 50여개가 발표되었다. 주제는 국가단위 QA의 프로그램의 적용 경험에서 병원단위 구체적인 적용사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QA 접근 등 매우 다양하였다. 그러나 포스터 발표 형식에 적절한 그래픽 구성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던 사례도 많았고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다소 산만한 느낌이 들었다. 전반적으로 국내 학회에 비하여 뚜렷하게 나은 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질 평가 도구로서의 환례 구성(case mix)' 연제 시간에 'DRG를 이용한 병원의 진료기능 평가 방법론 개발과 시행 결과(신영수, 김창엽, 이영성, 박하영)'를 김창엽 교수가 발표하였다.

4. 세계 QA의 동향

1994년의 세계 학회에 참가하여 느낀 이 분야의 최근 동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 과정,

결과 접근의 기본 개념은 이미 보편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용하는 용어에서는 질의 보장(quality assurance, QA)에서 포괄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Quality Improvement, QI)한다는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4년부터 학회의 명칭을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에서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 개칭한데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국가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질 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TQM)가 강조되고 있어, TQM이 질 향상 활동의 주류로 등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특히 결과(outcome)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서, 세계학회에서의 연구 발표가 활발하였다. 결과 지표(outcome indicator)와 임상기준(clinical guideline)의 개발이 질 향상 활동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래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몇 개 나라에서만 시행되던 병원신입제도는 이제 국제적 확산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의료제도의 개혁과 함께 영국이 이 대열에 가세함으로써 병원신입제도가 세계적인 차원으로의 확산될 계기를 맞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병원신입제도의 확산과 적용 사례발표가 다수 있었으며, 국가 단위의 예비(pilot) 연구도 개발도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신입제도 자체의 성격 변화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환자중심 병원신입제도의 소개는 신입제도가 단순히 의료의 구조적 측면(시설, 인력 등)만을 주 대상으로 하던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을 과정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보였다.

최근 QA의 국제적인 동향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QA에서의 환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환자와 소비자는 QA활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참여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들과 의료 전문인의 상호 이해가 QA활동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11차 대회의 주제가 '의료의 질

향상에 있어서)보건 전문가와 소비자의 역할 및 의료시장의 영향(The role of professionals and citizens and the influence of market forces)'으로 선정되었던 것도 QA에 있어 소비자와 의료시장의 영향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뜻한다. 환자의 참여가 강조되면서 환자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다양한 기법과 도구 개발 사례발표가 있었다.

그 밖에 응급의료 분야의 QA, QA의 경제적 효과 평가, 특히 병원단위 QA 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 등도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였다.

<부록> 학술대회 발표 연제의 주요 주제

1) 종합연제(Plenary Sessions)

- 의료의 질과 총체적 질
 - 병원의 경험
 - 전문가의 경험
 - 기업체의 경험
 - 서비스 산업에서의 경험
 - 전문가의 견해
- 결과 지표(Outcome Indicators)
 - 세계보건기구 사업(WHO Outcome Indicators Programme)
 - 임상결과 측정의 의무
 - 전문가 지표(Professional Indicators)
-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에서의 질 관리 활동(QA in Central and East European Countries)
- 전문가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Professional Quality)
 - 학부 교육(Undergraduate Education)
 - 졸업 후 교육 및 보수교육(Postgraduate and Continuing Education)
- 세계보건기구의 교육 사업(WHO education programs for quality)
- 질 향상을 위한 도구와 방법(Tools and Methods for Improvement of Quality)

- 운동의학에서의 위험 예방(Risk Prevention in Sport Practice)
- 비서구 국가에서의 질 관리 활동 경험(QA experience outside the Western World)
- 자원배분, 의료의 질, 환자의 만족도(Resource Rationing, Quality of Care and Patient Satisfaction)
 - 보건 행정가의 견해
 - 전문학자의 견해
 - 소비자의 견해
 - 질과 소비자의 역할

2) 분야별 연제(Parallel Sessions)

- 총체적 질 관리(TQM)
- 제약분야의 QA
- QA 연구(Research in QA)
- 보건경제학과 QA(Health economics: Methods and Impact)
- 병원감염(Hospital Infection Control)
- 외과분야의 QA
- 종양학 분야의 QA
- QI 관리
- 질 평가 도구로서의 case mix
- 응급의학의 QA
- QA 프로그램의 실행과 평가
- QI 도구와 방법
- 의료기관 신임제도
- 임상지침(Clinical guidelines)
- 환자만족도 조사
- 수혈
- QA를 위한 훈련
- 첨단기술과 QA에의 기여
- 일반진료와 재활의학의 QA
- 북미의 QA 프로그램
- 소아과에서의 QA
- 중미에서의 QA 경험
- QA관련 정부정책